

17/02/12(주) 주일예배 / 제목 : 참 믿음은 행함이 있다(약1:22~25) p.372

(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가지고 ‘**참 믿음은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한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3권으로 된 [연결]이라는 책인데 2000년에 출간되어 무려 360만부나 팔린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철환 씨가 쓴 책인데 취재에서 집필까지 9년에 걸쳐 수록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감동했을까요? 그 책에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언니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동생 두 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자장면 두 개 주세요.” 자장면이 나오자 동생들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안먹자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혜 언니는 왜 안 먹어?” 그러자 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기를 “응,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이 말을 들은 동생들은 마음이 아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좋겠다.” 이 말을 주방에서 들은 아주머니가 상황을 눈치 채고 주방에서 나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너 혹시 인혜 아니니?” 이 말을 들은 인혜는 자기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에 의아해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그러자 이 주방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네가 어릴 때 한 동네 살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떨게들 사니?”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그제 서야 굳은 얼굴이 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주머니는 “조금만 기다려. 아줌마가 맛있는 것 해줄게.” 말하고선 잠시 후 자장면 세 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를 내어 왔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먹은 후에 아이들은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자 아주머니는 “그래, 잘 가거라. 자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지 와, 알았지?”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분이 좋아서 “네.” 하고 대답하고는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편분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구네 집 애들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랬군,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 바로 앞이라 안에까지 다 들리던데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나는 진짜로 아는 줄 알았지.”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돼 보이던지.....”

\_ <연탄길 1권 / 풍금소리 중에서>

이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식당 아주머니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더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보이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탄길]이라는 책이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은 행함이 있다”입니다.

**본론** / 참 믿음은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하나요?

야고보서 기자는 초대교회에 ‘행함’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서신인데 야고보서는 ‘행동장’이라고 부르지요. 히브리서는 고난을 참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 박해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웅처럼 받아들여지고, 일부러 순교의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히브리서를 실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는 것보다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기자에게 행함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것을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를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을 확증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듣기만’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믿고, 시인하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증거 해주는 말씀이 23~24절에 나옵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23~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았을 때에는 자기 얼굴이 기억나지만, 밖에 나가서 지내다보면 자기 얼굴을 기억합니까?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을 이런 거울의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엇이었던지 곧 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말씀을 듣거나 보다가, 또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얼마 안가서 곧 식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 가서 감동 받았던 그 때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볼 때는 선명하게 보였는데, 고개를 돌려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인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겨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은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믿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분은 현대판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이 분의 삶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분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1968년에 춘천에서 있었던 만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술잔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여러 장성들과 함께 만찬을 연 적이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여러 장성들에게 친히 술을 따라 준 것입니다. 술잔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감사의 표시를 하며 마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사람은 "대통령 각하 저에게는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저는 술을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분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한번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잔이라서 오늘날만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의 체면

을 봐서라도 모른체 하고 마셔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굳건한 믿음의 정절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각하 저에게는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저는 술을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언지하로 대통령의 축하 술잔을 거부해 버리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 분을 유심히 쳐다 보았습니다. 이 날의 이 순간을 함께 지켜봤던 한 장군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고 난 후 엄청난 정적 속에 잠긴 것이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겠습니까?

이때에 대통령의 굳은 표정을 본 국방 장관이 순간 벌떡 일어나 "각하 나 장군은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그 잔은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잔을 뺏다시피 하여 단숨에 마셔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체면 손상! 그 위기의 순간을 국방장관의 기지로 일단 넘어갔지만 만찬장의 분위기는 이미 엇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난 대통령은 의기소침해 있던 사람에게 다가 가더니 "니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만찬장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공식 만찬 석상에서 축배를 거절당한 예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이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희필 장군(1926~1993)입니다. 이날 만찬이 끝났을 때 박종규 경호 실장이 나 장군에게 다가와 "선배님 해도 너무 했습니다! 꼭 그렇게 각하에게 망신을 주어야 합니까? 국군의 통수권자요 대통령으로서 손수 축하의 술잔을 권하면 정중히 받아서 입잔이라도 하는 척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분 초를 따지며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 또한 얼굴 표정 하나하나까지 살펴야 하는 경호 실장으로서 이 날의 그 순간의 초조함과 그 고뇌가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떠나간 후 선배 장군들이 나 장군에게 찾아와 너무 경솔했다는 질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별을 하나 더 달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인데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지 내일 일찍 책상 정리나 하게.".....

사단장 관사로 돌아온 나 장군은 정작 매우 불안해야 될 자신의 마음이 오히려 평안함을 느끼면서 "내가 과연 그 정도의 신앙에 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참 이상한 일이다. 내일 당장 청와대에서 어떤 책벌이 떨어져도 상관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육사를 졸업할 때 구대장께서 장교가 되어 술을 안 먹으면 출세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나를 오늘날 장군까지 진급시켜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나 장군은 기도와 함께 이날 밤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나희필 장군은 왜 술을 그토록 싫어했을까? 그것은 아마 어린 소년시절 술을 자주 마시는 할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항상 고생하던 모습이 그가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항상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평양에서도 소문난 전도사인 어머니(임태화)의 눈물의 기도가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 자신이 모태 신앙인으로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 인생을 사는 동안 술의 즐거움보다 후회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군복을 벗을 것으로 생각한 나 장군은 다음날 책상 정리를 끝내고 상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문책은 오지 않고 오히려 별을 하나 더 달고 소장으로 진급하여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장으로 영전되었고 다시 3군 사령부 창설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희필 장군의 삶이 이러하니깐 은퇴한 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나희필 장군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나 장군이 육대 총장에서 만기 제대 예편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나희필이는 더 있어야 할 인물인데" 하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희필 장군이 제대 후 어느 날 밤 심야에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정보부의 차장보 자리의 인선문제로 며칠 밤을 지새던 김재규 부장은 문득 나희필 장군이 생각나 새벽 두 시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나 장군이야 말로 바로 이 자리에 앉을 가장 적임자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오" 당시 이 차장보 자리는 중앙 정보부의 막대한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요직이기 때문에 청렴 결백성이 요구되는 인물을 추천해야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재규 부장의 보고를 받고 난 박정희 대통령도 흐뭇한 표정을 지우면서 "일국의 국가 원수가 친히 권하는 축하의 술잔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믿음의 장군 나희필이야 말로 그 어떤 압력도 부정도 유혹도 능히 거부할 수 있는 인물이다. 잘 추천했다"라고 만면에 미소를 머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나희필 장군은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나희필 장군에 대한 칭찬을 자주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후 대통령은 나희필을 다시 장관급인 비상 기획원 위원장 자리로 영전시켰습니다. 그러니 현대판 다니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던 박정희 대통령이 기독교인인 나희필 장군을 이렇게까지 아꼈으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나희필 장군은 새문안교회 장로로서 1993년에 68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임종 직전에 새문안 교회 김동익 목사의 눈물의 기도를 받는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목사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고 먼저 떠납니다.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목사님,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주 안에 있는 나에게)을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나희필 장로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나희필 장로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답게 정절을 지키고 삶의 모범을 보이고 불신자에게까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5절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자유롭게 하

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재미 교포인 하형록 회장이 쓴 **[생애 비서]**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적인 건축설계 회사 '팀 하스'의 회장인 하형록은 심장 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는 생명의 위험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 게 사업을 시작하며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잠언 31장의 원리를 따라합니다. 그중 하나의 원 리가 “Extra Mile”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beyond door’ 즉 문 밖까지 배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처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 리를 동행하고”에 근거 한 것입니다. 잠언 31장 24절의 말씀, **(잠 31:24)**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팔기며” 모시 로 만든 고급 제품을 띠까지 돌려 보낸다는 것이 바로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이 분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이 엑스트 라 마일에 관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당신은 회사 일을 할 때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미국인들은 대 개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말은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늦게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엑스트라 마일이라 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고객에게 일을 부탁받은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내일이라면 그 일을 끝내기 위해 밤을 새우는 일을 엑 스트라 마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고객을 위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마무리해줘 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엑스트라 마일은 무엇인가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주라는 것이 엑스트라 마일인가요? 아닙니 다. 예를 들어 애인이 “커피가 마시고 싶은데 커피 한 잔 사다줄래?”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커피만 사다 줍니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커피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쿠키도 사다 줍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엑스트라 마 일을 실천하는 사람인가요? 커피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쿠키를 사다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엑스트라 마일은 바로 쿠키가 되는 것입니다.

고객은 커피뿐 아니라 쿠키까지 곁들이는 엑스트라 마일을 반복해서 받으면 어느덧 마음이 열려서 그를 신뢰하 게 됩니다. 애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연인의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 다. 제가 왜 예를 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들은 한결같이 'extra mile'의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기에 성경대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히필 장군의 경우나 하형록 회장의 'extra mile'의 정신을 볼 때에 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실천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믿음의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길 선명한 믿음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남길 믿음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흔적을 꼭 남기시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상을 받으십시오.

**결론핵심** : 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하기에 우리도 믿음의 흔적을 남깁시다.